

# 다섯 經典群 나눠 해설 곁들여



성도 후 전법을 망설이던 부처님이 제석천의 간절한 청으로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했다. 간다라 대영박물관 소장.

아함성전

조용길 편저



님의 말씀을 존재의 법칙에 관한 경전군(群), 인간의 분석에 관한 경전군, 인간의 감각에 관한 경전군, 실천의 방법에 관한 경전군, 시(詩)가 있는 경전군 등 총 다섯 경전군으로 나누어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삼보, 수행, 가르침, 세속, 반열반으로 구분했다.

간결하게 달았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부적인 문구를 생략해서 읽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육성으로 읊어볼 것을 권한다. 고대 불교도들의 암송에 의해 확립된 경구를 직접 암송해보는 것이 구송문화로서 아함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20여 년 동안 아함경의 번역 작업에 매달린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아함 스터디를 하며 틈틈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원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열해보고 한 역본을 꼼꼼히 대조했다. 앞으로 작은 판형의 배열이 본과 영어본도 펴낼 예정이다. 한편 지은이는 최근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아함의 지속적인 연구와 아함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아함심원학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책 뒤편에는 책에서 소개한 428경에 대한 남전(상응부경전)과 한역(잡아함경)의 비교표를 실었다. 책 구입은 출판사서 직접 문의해야 한다. (02-2279-2343) 값 7만원.

출판 담당 = 이수령 기자 snoopy@buddhapa.com

## 초심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저술

### 저자 "독자 자신 육성으로 음송" 권해

부처님의 초기설법을 집대성한 아함경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물론 수행자, 바라문, 상인들과의 질문과 답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음으로 들을 수 있는 아함경의 서술방식은 극히 단순 소박하면서도 간결하다.

부처님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아함경의 구절을 가려 모아 <아함성전>(조용길 편저, 해조음으로 펴냄, <아함성전>은 남전 5니카야와 북전 4아함에 담긴 부처



새불교운동의 전개

김광식 지음

대불교의 재조명'을 펴낸 지은이는 <새불교운동의 전개>를 통해 학계에서 외면해왔던 지난 20세기, 100년간의 불교사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후 이를 재정립했다. 지은이는 "한

대 불교 내부에 흐르고 있는 큰 물결을 '새불교운동의 전개'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친일불교, 왜색불교, 혹은 폭력과 분규, 갈등과 대

### "근현대 불교갈등 거듭나기 몸부림"

국불교의 근현대사에 비친 갈등양상은 새로운 불교 운동을 위한 고뇌이자 몸부림이었다"고 지적하고 "대립과 혼탁, 명리추구로만 해석돼 왔던 근현

대의 역사로 왜곡 축소된 우리 불교의 근현대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찰로 본 20세기 우리 불

교'라는 주제로 발표한 개별 논문들 모은 이 책은 1부 '근대불교의 과제와 실천'에서는 일제 하의 불교계의 통일 운동과 조선불교조계종의 성립 등을, 2부 '민족불교의 지성과 그 특성'에서는 일제하 불교계의 독립운동과 김법린과 피압박민족대회,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운동 등을 다루고 있다. 3부 '불교정화와 한국불교의 정체성 모색'에서는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전국신도회의 조계종단 혁신제건안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값 2만원.

한국불교용통사

정태혁 지음



'1천 6백여 년의 역사 속에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태혁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

에 따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지은이는 이들을 정도로 가게 하는 것이 원음불교로서의 한국불교 전통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불교의 전래과정과 불교가 우리의 고유문화와 어떻게 융합하고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삼국불교의 발전과정과 원효의 심원화쟁사상, 보우의 원음불사의 내용을 깊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불교가 현대에 이르러 깊은 자기반

## 불교·고유문화의 융합·정착과정 서술

불교용통사(정우서적)에서 '원음불이(圓融不二의 정신)'라고 말한다. 한국불교사의 특징은 선에만 매달리거나 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회통하여 불시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각각 가는 길이 다르다고는 하나, 불의(佛魂)

성과 성찰보다는 의례와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분규와 정화라는 회오리바람을 맞으며 많은 종단이 무성한 가지로 뻗어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부록으로 한국불교용통사 연표와 근세로 이어진 태고보우의 법통일람표를 담고 있다. 값 1만5천원.

청춘을 불사르고

일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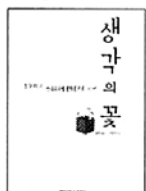
김영사가 일엽스님의 <청춘을 불사르고>의 옛 문체를 읽기 쉽게 다듬고 한자어에 대한 각주를 달아 30여년 만에 재출간했다.

책은 화가 나혜석과 함께 개화기 신여성운동을 주도했으나 결혼에 두 번 실패한 뒤 32세의 나이에 돌연 출가한 스님의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춘원 이광수가 '일엽'이라는 호를 지어줬을 정도로 뛰어난 문재를 지닌 작가였던 일엽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으로 출가한 후 '글 또한 망상의 근



원'이라는 스승 만공 스님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2년이 지난 뒤에 이 책을 썼다. 1960년 출간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젊은 여성 독자들의 구도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 값 1만1천원.

생각의 꽃



문학콩쿠르'가 올해로 40회를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고교생 백일장인

동대신문사

문예창작학과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 작품을 모은 책 <생각의 꽃>은 1회 시부 장원을 차지한 하일(부산 배정고)의 '사과의 정물화'를 비롯해 시와 소설, 수필 부 장원 작품을 담고 있다. 소설가 윤우영, 시인 문정희, 동화작가 정리태 등의 콩쿠르 당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값 1만5천원.

새로나온 책

▲소리 없는 노래가 머무는 뜨락(윤월 지음, 우리출판사) = 불교여래원 원장인 윤월 스님의 수필집. 스님은 글을 통해 어둡고 아픈 우리의 현실, 소외된 현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를 끊임없이 찾고 자성하며, 거기서 얻은 것들을 예리하고도 섬세한 감각으로 표출해 내고 있다. 값 9천원.



▲나를 찾는 붓다기행(정천주 지음, 민음사) = 깨달음을 찾아, 마음 속 붓다를 찾아 네덜 카트만두에서 인도 바라나시까지 붓다 금강경·아함경·법화경 등을 설했던 현장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행복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붓다 기행을 '본래의 나'를 찾는 순례라고 고백한 지은이의 말이 무겁게 와 닿는다. 매 장마다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현재의 풍광을 담은 사진이 서너 컷씩 실려 있다. 값 1만원.



▲풍경소리로 여는 산사의 아침(법선·문미화 지음, 오늘의 책) =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진리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병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치료 또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합일을 중시했다. 이 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의 건강법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 실제 불가에 전해오는 건강비법과 수족은욕법,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 일반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속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값 8천원.



▲생각보다 쉽다(실비아 부어스타인 지음, 권국성 옮김, 이콘과 실천) =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놓은 불교인문서. 소박하고 평범한 언어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 실비아 부어스타인은 심리학 박사이자 30년간 미국 전역을 돌며 명상법과 불교 철학을 가르쳤던 경험을 책에 담고 있다. 값 8천원.



###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릭 낫 한	명진출판사
2	참선교육1	현 달	도서출판선
3	마음은 없다	제베트 기단	탐 구 사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5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6	보왕삼매론강의	김 현 준	효 림
7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8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9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울
10	절을 가차게 잡히는 법	청 건	붓다의 마을

도서 안내: (02)737-0695

- 마음고치 벗고 풀어 나비되고 비단짜기 -

# 참나 온전 깨침

www.hanahan.org

### 법안영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8,300원  
가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물어보세요.

###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5,400원  
시와 경과 사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 정화사 도서안내

법안영상기공지상강좌

1 만국역리학 보덕 지음

6 이름운세풀이 2002

8 색즉시공즉시색

● 칼럼집

마음의 창 (7,200원)  
길따라 마음따라 (4,500원)

IMF의 고난을 창조적 자력으로 헤쳐나기도록 현실을 바로보고 미래의 전심을 일깨워 주는 21세기 자성인의 교양서

● 명상시집

해탈 (5,000원)  
정화의 빛 (4,500원)  
달아날 보라 (5,400원)  
고향의 숨결 (4,500원)  
사랑과 바람의 시 (4,500원)

순수한 구도의 열정으로 심신을 닦아 찬란한 깨달음을 이루고 진공무위의 직유로 중생교회를 위해 세상에 내놓은 구도와 깨달음의 명상시